



<신년사>

‘전문가로서의 자질계발’이 필요한 때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무자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회원 분들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평안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새 대통령 취임, 국회의원 선거 등의 영향으로 어느 해보다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방송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벌써부터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송의 위상과 역할에 심각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전문가로서의 자질계발’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바다에 떠다니는 한 척의 조그만 나룻배일지라도 ‘디지털’의 험난한 파도를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서서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나가고, 서로 격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 소외된 자를 향한 따뜻한 관심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무런 결림도 없을 것입니다. 올 한해도 회원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 년 내내 건강하십시오.

전광선 /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회장

협회, 2008년은 내실을 다지는 해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전광선)는 2008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이달 예정된 전국 운영위원회 워크숍에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2008년도 협회 사업계획안은 지난해 보다 다양한 연수와 교육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실시되는 행사는 명예카메라기자 워크숍과 전국 신입 카메라기자 공동연수, 그리고 격월로 진행되는 보도영상 세미나가 있으며 2월 중순엔 제21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대상 수상자들의 해외연수가 실시된다.

올해 협회의 핵심 사업은 한중일 카메라

기자의 우호와 협력을 다지고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동아시아 보도 영상 포럼(가칭)과 한중일 방송사 교류 사원제이다. 또, 기존에 실시되었던 카메라기자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전문 수중촬영교육과 암벽등반 촬영 교육, 디지털 영상편집교육, 항공촬영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해외연수는 영국 적대적 혐지교육과 방송 장비 전시회 참관 등 다양한 연수기회를 확

대하고, 해외 연수 예정이거나 국내 대학원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회원에게 방송발전기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신청을 실시 할 예정이다.

협회는 방송현안에 대한 정책 수립과 대응, 그리고 지속적인 보도영상에 대한 연구를 주도 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제안을 기대한다.

이정남 기자 newscams@korea.com

지면안내

- 2면 <외부기고> 카메라기자들의 새해 구상
- 3면 대선 취재가 남긴 숙제들
- 4~5면 신입 카메라기자 새해 소망 릴레이
- 6면 이어지는 인터뷰 시즌 2 - MBC 심승보 부장
- 7면 <건강칼럼> 어깨 결림 그 증상과 치료법

제18회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작품 공모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는 제18회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가. 공모 내용

- ① 공모 기간 : 2008년 1월 2일(수) ~ 1월 11일(금)
- ② 제출처 :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사무처 (Tel : 02-3219-6477)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번지 한국방송회관 15층
www.tvnews.or.kr
- ③ 제출 내용 : VHS, BETA 각 1편 및 공적서 1부
(첨부파일 홈페이지 다운로드)
2007년 11월 1일 ~ 12월 31일 까지의 방송분

나. 시상 부문

- ① 보도 뉴스 부문 (1작품) - 상패 및 부상
- ② 보도 기획 부문 (1작품) - 상패 및 부상
- ③ 지역 보도 부문 (1작품) - 상패 및 부상

다. 특전

- ①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수상작은 연말 제22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대상 본선 자동 진출
- ② 수상작은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

주최 :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후원 : 소니코리아

주인

장비가 곧 경쟁력

얼마 전 대선 직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주변은 그를 취재하려는 취재인파로 북적거렸다. 기존 공중파방송의 카메라기자들과 외신기자들 그리고 사진기자들이 뒤섞여 대 혼잡을 이루었다. 6mm캠코더를 사용한 취재진도 이 대 혼잡에 한 몫을 톡톡히 했다. 이전에는 공중과 방송의 외주제작이 증가하면서 제작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됐던 VJ들이 전부였다면 요즘은 이들 외에 각종 인터넷 매체와 통신사들 그리고 사진기자들 까지도 캠코더를 들고 취재를 하고 있다. 취재현장에서 우선권과 기록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기존 공중과 방송과 케이블 방송을 제외하고는 캠코더로 촬영한 아마추어의 영상을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고 영상을 전송하고 내려 받는 스트리밍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사로 콘텐츠를 생산하던 기존 신문사마저 동영상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취재기자들과 사진기자들에게 캠코더를 지급하고 인센티브까지 도입해 동영상 촬영을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취재기자가 촬영한 영상이 특종영상이 되어 공중파 방송에서 영상을 받아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 2007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현장에서 취재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난 각종 매체들 때문에 취재하기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취재현장에 서 있을 때 취재의 한계를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스트레이트 취재의 경우 ENG카메라도 1/3일 뿐인 것이다. 더 이상 기록권을 내세울 수 없고 매체의 영향력이 점차 분산되면서 좋은 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 보여 진다.

이제 우리의 경쟁력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때 다. 방송사들이 HD뉴스를 도입하면서 뉴스화질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실제 HD뉴스를 도입한 방송사들도 있고 앞으로 도입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방송사들도 있다. 화질 면에서 도약이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제작기법이나 특수 촬영을 통한 차별화 노력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본초를 다루는 취재현장에서는 경쟁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DNA에 녹아 있지만 한계를 느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호흡이 긴 뉴스 제작물을 촬영할 때 주로 특수촬영 장비를 사용해왔다. 이제 데일리뉴스 제작물에도 다양한 촬영 장비와 기법을 사용해서 보다 나은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때가 되었다. 각 방송사나 협회를 통한 특수촬영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뭄에 콩 나듯 했다. 우리도 이제 촬영장비교육의 절실함을 인식하고 회사와 협회에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 확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협회를 통해서 제작된 특수촬영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경험자를 통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겠다. 수많은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취재를 하고 특종보도, 신속보도에서 제한적인 상황에서 곁들여 촬영한 특별한 한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신입 카메라기자 공채에 협회 명예카메라기자 4명 합격

지난해 실시된 신입 카메라기자 공채 채용에서 YTN 2명, SBS 2명, MBC 3명, KBS 4명 총 11명의 신입 카메라기자가 채용됐다. 이 11명의 신입 카메라기자 중 무려 4명이 협회 명예에 카메라기자 출신이다. [KBS : 조세준, 최만용 (2기), MBC : 정인학 (2기), SBS : 설민환 : (17기)]

‘대학생 명예카메라기자’는 카메라기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 또는 영상 촬영 편집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협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에 바란다



굵직굵직한 사건사고로 얼룩진 2007년도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 영상기자들은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오늘도 일하고 있다.

2007년도 시작과 동시에 다짐했던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 협회원으로서 바라는 마음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우선,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상시화 되어야하고 모든 회원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란, 영상기자로써의 카메라의 다양한 운용뿐만 아니라 편집, 취재시의 안전 등등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교육을 의미한다. 물론, 산악취재, 극지취재등과 같이 특성화교육도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각 회원사 선배님들의 현장경험을 살린 이론과 실습강의는 모든 회원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불어, 얼마전 협회보도에 실렸던 영권현 지교육, 패러글라이딩교육등과 같은 국내/해외의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더 많이

발굴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로는 “한번 영상기자는 영원한 영상기자”라는 의식을 심어주자는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회사를 떠나게 되어 있다. 나이가 들어 퇴사를 하든, 다른 곳에 뜻이 있어 떠나는 이유도 다양할 것이다. 앞으로 그런 회원들은 계속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회사를 떠난 회원들에게도 꾸준히 협회보도 보내고 그들의 소식도 협회보에서 다루고 하는 일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싶다.

또한, 1년에 한번 아니 격년에 한번이라도 선후배 만남의 장을 가질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선배된 입장에서 있고 있었던 남들에게서 협회보나 소식 등을 들으면 굉장히 기쁠것 같다.

세번째로는 해외 영상기자와의 교류,국내 사진기자와의 교류를 하자는 것이다.

1년이면 각 방송사는 각종 화담이다. 특집포로다. 기획포로다라는 다양한 명제아래 여러나라에 취재진을 보낸다.

해외에서 취재를 하다가 현지에서 친해진 영상기자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간단

카메라기자들의 새해구상

참으로 표현하기 힘든 TV 방송 탐사보도 영상 연출에 관심이 많은 필자에게 흥미를 끄는 세미나가 하나 있다.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탐사보도(IRE) 총회를 참석해 보면, 수많은 탐사보도 관련 세미나 가운데 방송카메라 기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탐사보도 영상 표현기법’에 관한 세션이 꼭 포함 되어 있다. 이 세션에서는 탐사보도 소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TV 탐사보도에 있어서 영상 미학적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토론했고 사례를 소개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7 IRE 대상을 수상한 미국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 NBC 지역방송국인 WTHR의 ‘경보기의 문제(Cause for Alarm)’ 보도를 들 수 있다. WTHR ‘Eyewitness News’ 팀은 지역의 중요한 현안인 토네이도 사이렌의 문제점을 주제로 취재 하였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 9개 군(county)에 걸쳐 거주하는 2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비롯하여 많은 학교나 공원지역에는 토네이도를 예보하는 사이렌이 없어서 돌발적인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탐사보도 주제도 참신하였지만, 프로그램 도입부에서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멋진 장면을 방영하였다. 토네이도로 폐허가 된 집 터미 위에서 기자가 리포트를 시작하자마자,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토네이도 사이렌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는 굉음을 배경으로 마치 시공을 초월하여 날아가는 듯 한 영상 컷을 연출하여 시청자

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짧은 시간에 생생하게 일깨워 주었다.

이처럼 방송뉴스에 있어서 카메라 영상테크닉의 개발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 화질 영상기술 개발로 TV 화질 개선은 괄목상대할 만큼 발전하였지만, 이에 따른 다양한 표현 기법에 대한 개발은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IRE에서는 마감 시간에 쫓겨 만족할만한 영상표현을 못하고 있는 방송카메라기자들을 위해서 ‘뛰는 아이디어와 새로운 영상기법(Hot Ideas & Cool Techniques)’을 자체 제작하여 유료로 배포하고 있다. 지면에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百聞不如一見’처럼 그 영상을 보면 방송을 하기위한 영상표현 기법에 대해서 미국 방송 카메라 기자들이 고민했던 흔적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른 매체와 비교해서 텔레비전 뉴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현장성’과 ‘즉시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앵글로 방송 카메라 기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신속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뉴스 전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다. 뉴스가 가져다주는 사회학적 의미에 대해서 연구하는 미국의 언론학자 게이 터크만(Gaye Tuchman)은 그의 저서‘메이킹 뉴스-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연구’에서 텔레비전 뉴스는 ‘세계로 향해 열린 창’이라고 비유하였다. 그는 이 창을 통해 바라보

는 세계는 창 의 크기와 창틀의 수, 우리의 맑고 흐린 정도, 창이 나 있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TV 뉴스는 ‘진실(truth)’이 아니라 한낱 과련화된 ‘사실들(facts)’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반 대중은 TV를 통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자연 그 자체인 것으로 이해하듯, TV 뉴스를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유출사건’과 같은 대형사건이 벌어졌을 때 시청자들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TV 화면에 웅기웅기 모여서 참사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자발적으로 정화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제 이러한 행위는 현대인들의 의식이 되어 버렸다. TV 화면을 보면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신문을 통해 읽고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가는 세상이 된 것이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TV 카메라 기자들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하는 화면들과 흘러나오는 소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것이 곧 사회의 여론이 되고 세상을 바꾸게 하는 기폭제로 작용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처럼 사회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 주인공인 방송 카메라 기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IRE 총회에 참석했던 방송 카메라 기자들의 한결같은 결론은 ‘무한 상상력’(unlimited imagination)을 꼽았다. 방송 카메라 기자들이 순간순간 시간적 압박에 시달리면서 좋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무한 상상력을 키워야 하지만 어렵게도 이것은 단시일에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상상이 없으면 창조도 없다’고 하고 상상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독서를 꼽았다. 일견 현장을 바쁘게 움직이는 방송 카메라기자와 차분히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 독서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만 이러한 이상한 조화야말로 앞으로 카메라 기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틈틈이 시간 날 때 마다 독서하는 방송 카메라 기자야말로 상상력을 무한대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단순 도제식 기술 습득에서 벗어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창조력을 한껏 배양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한다. 2008년 새해를 맞이하며 풍부하고 방대한 독서를 기반으로 방송 카메라 기자는 자신만의 영상을 창조하면서 인생과 일을 즐겁게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일단 이번 방학 때 그간 시간이 없어 묵혀두었던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윤태진 교수가 번역한 마리타 스투르켄(Marita Sturken)과 리사 카트라이트(Lisa Cartwright)의‘영상문화의 이해(Practice of Looking: An Introduction to Visual Culture)’(커뮤니케이션북스)를 읽고 영상문화의 소양을 키워야겠다는 소박한 구상을 해본다.



이민규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교수

2008년 협회,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007년에 새롭게 단장해 시험 운영한 홈페이지를 새해에는 본격 가동합니다. 각 지부들의 이야기와 의견수렴, 제안, 답변, 행사 안내, 전문기고, 기타 교육과 같이 온라인 상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협회원들의 의견수렴, 정책 결정, 친목도모를 강화하고 인터넷시대 협회 운영의 초석을 마련합니다.

인터넷 시작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운동

(포털과 협회사의 사이트가 링크되어 한번에 갈 수 있어 협회 소식도 보고 포털도 가고)

협회원들의 하루 10클릭 운동

(일정 클릭수가 되면 광고수주가 가능하며 그 비용은 하드용량확장과 구입에 쓸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간단한 생활 속의 습관으로 협회가 튼튼해집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심사위원제도가 심사위원단이 구성되어 새롭게 출발합니다.

특종 영상취재를 넘어 카메라기자가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시상을 통해 카메라기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심사위원단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15명의 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5명이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장과 함께 심사의 기준을 발표하고 심사의 평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협회에 바란다

참여와 호응

카메라기자협회가 풀어야 할 숙제 중 중요한 것 하나가 회원들의 참여와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 내야 하는 점이다. 한마디로 참여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지역회원들은 가깝고도 먼 협회로 인식하고 주체인 협회는 성원 없는 구성원들이라며 질책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의 바탕에는 일차적으로 중심부인 서울과 주변부인 지역으로 구별되어짐으로 생기는 열등의식과 이차적인 문제점으로 회원 수는 50:50이지만 외국연수 같은 혜택은 중심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주변부의 불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소의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의 간극을 엮을 수 있는

구조의 틀을 만드는 것이 협회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자협회 탈퇴로 카메라기자회 독자노선을 가면서 회원 폭의 확대 등을 통해 역량을 모아 카메라기자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시도 또한 생각해 볼만하다. 양이 충족되어야 질적인 발전이 있을 많은 논의와 관심이 협회에 모아지길 기대한다. 참고로 출장이나 파견 나가는 기자도 기자협회회를 볼 수 있도록 기존의 용지 외에 이메일로 협회보를 발송하는 방법도 좋겠다. 김훈 / 대전MBC 보도국 기자

<부회장 신년메시지>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이면 썩고...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이면 썩고, 흐르는 물은 맑고 깨끗 하듯

2008년 올해에는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왔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부족함이 있는 곳은 원인을 찾아서 채워주고, 항상 흐르는 물처럼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과 좋아하거나 해보고 싶은 일들을 즐기면서 평소 소중한 사람들에게 메일 혹은 안부 전화라도 한통.....

가족의 행복과 건강에 유념하시고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두려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합시다.

현길만 / JIBS 보도국 영상취재팀 차장

신나게 현장을 누비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올 한해는 안으로 새 정부 출범과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밖으로는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西世東漸 시대의 변화기점을 노리는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로 세계가 역동하고 있습니다. 이

런 때 일수록 국민의 바른 알림이로서 영상기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그 영상은 빛나라라 생각합니다.

즐겁고 신나게 현장을 누비는 영상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기자 파이팅!!!

최남일 / SBS 영상취재팀 차장

2008년, 모두의 안전을 기원하며



대선과 기름유출 현장에서 멀게는 미안파 시위현장을 누리고 다녔던, 우리 영상취재기자들의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더 안정적인 조건에서, 안전하게 취재를 하게되길 기원해봅니다.

김강용 / KBS광주충국 보도팀 기자

만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또 언제 보겠나며 두리뭉실 피하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나라의 방송영상기자와의 교류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들의 취재환경은 어떻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조금씩 관심을 갖고 우선 한 두 나라라도 추진한다면 초대도 하게 되고 방문도 하게 되고 협회차원에서는 세계 곳곳에 좋은 친구를 두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국내적으로는 많은 취재현장에서 부딪치며 살아가는 사진기자들과의 교류도 조심히 추진해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제 일 / SBS 영상취재팀 기자

제17대 대통령 선거 취재를 마치고

대선취재가 남긴 숙제들...

17대 대선이 끝났다. 이는 우선 각 캠프별 일정이나 브리핑 메일, 문자메시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든 것에서 우선 실감할 수 있었다. 당선된 쪽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낙선된 쪽에서는 침울한 분위기가 가득한 가운데 대선 이후의 또 다른 일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있다. 몇 십만, 몇 백만이 움직이는 대규모 장의유세는 없었다. 대신 TV토론회, 각종 매체를 이용한 후보광고, UCC 홍보 등이 그 자리를 메웠다. 정책대결보다는 이미지 대결에 더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카메라기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하여 취재해야 했다. 이미지 정치의 시대가 그때부터였다. 각 캠프에서 후보의 연설내용, 방법, 일정 조정에서부터 동작, 헤어스타일, 분장, 의상, 표정에 이르기까지 카메라기자의 조언을 구하는 모습에서 그 중요함을 잘 알 수 있었다. 이미지를 안방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카메라기자의 객관성과 공정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취재임에는 틀림없다.

도였다. 늘어진 취재진의 수만큼 다양한 질문들과 요구사항이 쏟아져 행사진행이 더더욱 더워졌고, 그만큼 취재현장은 복잡하고 무질서해졌다. 객관성, 공정성은 차치하고라도 일반적인 취재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다. 더군다나 보안상의 이유로, 혹은 캠프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다음날 일정이 전날 저녁에야 정해지고, 그나마도 계속 변경되어가는 상황은 카메라기자들을 이중고 삼중고로 내몰았다.

면서 지치고 힘들기도 했지만, 대선이라는 큰 행사의 한 가운데서 그 열기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카메라기자들은 현장에 있었고, 분장, 의상, 표정에 이르기까지 카메라기자의 조언을 구하는 모습에서 그 중요함을 잘 알 수 있었다. 이미지를 안방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카메라기자의 객관성과 공정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취재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뉴스는 '후보' 위주에서 '당선자' 위주로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혼란과 열기가 함께했던 대선에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현장의 한 가운데 있던 카메라기자들도 이제 한 숨을 돌리면서도 이번 대선취재가 남겨준 과제를 주시하고 해법을 찾아내는데 몰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면을 빌어 대선취재에 임한 모든 카메라기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태안 기름 유출 사태, 총기탈취사건, 삼성 특검 등 굵직한 사건·사고와 때를 같이한 이번 대선은 투표율이 말해주듯 세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하지만 대선을 둘러싼 각종 폭로전과 특검법 문제, 대선취재 열기만큼은 어느 때 못지않게 뜨거

대선취재에서 카메라기자의 가장 큰 고민은 '객관적 영상, 공정한 편집'이었다. 한 컷의 영상이 시청자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상당함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했다. '후보 연설, 유세규모, 유세장에 나온 사람들의 반응' 등을 초 단위까지 감안

취재환경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취재진은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유세나 연설, 방문 등의 일정이 있을 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일찍 현장에 도착해 있지 않으면 취재 자체가 어려울 정

메일메일 이어지는 각 후보들의 일정을 취재하고, 뉴스시간에 맞춰 송출하고, 또 다시 다음날 일정을 체크하는 날이 반복되

김해동 / MBC 보도국 영상취재1팀 기자

태안 기름 유출 사태 취재기 I

국내 최대 원유 유출사고 그 10일간의 기록!



12월 7일 오전 7시 50분 취재기자 선배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황해 중이던 흥공선적 14만6천t급 유조선이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1만1천800급 부선과 충돌해 유조선 왼쪽 오일탱크 4개에 구멍이 나 1만2천547kl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다급한 목소리의 사진 소식이었다. 카메라 장비를 켜겨 일단 태안으로 향했다.

보니 이미 원유가 해안까지 밀려와 해변을 시커멓게 오염시키고 있었다. 오전의 해경브리핑 시 충분한 방제력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원유유출로 인한 해안가 오염은 없을 것이라던 당초 발표와는 달리 브리핑 13시간 만에 원유가 만리포 해안까지 이동해 온 것이었다. 11시 뉴스라인에 단독으로 그 현장을 고발 하였고 이 사건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예감했다.

유유출은 없다고 했는데 말이다. 시커멓게 뿜어져 나오는 원유는 계속해서 점점 더 바다를 점령해 가고 있었다. 해상 중간 방제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화제나 차단막으로 쳐 있는 오일펜스도 무용지물이었다. 대한민국의 방제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가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현장 취재를 마치고 다시 KBS 취재본부가 꾸려진 천리포로 가는 길! 해안가는 이미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고 바닷물은 이미 푸른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제 작업에 나서고 있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인 듯 해 보였다. 날이 갈수록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만리포와 학암포 신두리 사구 모항 의항리 파두리 그 외 여러 지역을 찾아가 시커먼 오일로 뒤덮인 해안가와 바위 틈새 틈새를 닦아내고 원유를 퍼 나르면서 이 재앙이 끝나기만을 기원했다.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자, 재외국민, 한국에 시집온 해외 이주민들도 눈에 띄었다. 카메라에 이들의 모습을 담으면서 그 옛날 IMF때 대한민국의 저력이었던 금모으기 행사가 떠올랐다. 정말 놀라웠다. 재앙 앞에서 망연자실하기보다 더욱 단결하고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저력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음을 희망이 있음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다.

듯 보였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엔 원유보다 더 시커먼 실망감과 절망감이 닦아도 닦아도 지워지지 않고 가슴 한 켠에 남았다.

원유의 기름띠는 어느 정도 제거 됐지만 상당수의 원유가 이미 모래 속으로 파고들었고 타르덩어리로 변질되어 바다 위 아래로 수십 킬로 수 백 킬로미터의 해상을 떠돌고 있다. 문제는 이 원유들이 더운 여름이 되면 다시 녹아 해상으로 해안가 위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복구를 한다 해도 이미 생태계가 제자리를 찾은 데는 10년 -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이들의 삶의 터전을 원상복구 하는 방법도, 예상치 못했던 재해로 한 순간 얻게 된 수많은 빛을 해결할 방법도 현재는 시커먼 원유처럼 캄캄하기만 하다. 이미 이들의 여름은 없어진 지 오래다. 수십 수백만의 인과로 북적였던 해수욕장의 모습도 배 한가득 파다파다 튀는 물고기를 싣고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의 모습도 한 동안은 이곳에서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도 올 여름 북적이는 해수욕장의 인파와 배 한가득한 물고기보다는 카메라에 다시 떠오른 원유와 기름 덩어리들을 취재 할지도 모를 일이다.

태안 기름 유출 사태 취재기 II

절망의 태안 바다에서 희망의 햇살을 보다



3주 만에 달콤한 휴식을 맛보고 있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푸른 녹차밭과 깨끗한 강이 보이는 시골 찾집.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 날이다. 오랜만에 친구와 수다가 이어지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태안으로 넘어갔다.

친구 : 태안 출장 잘 다녀왔어? 몸에 밴 기름때는 뻘?

나 : 왜, 기름 뱌새냐? 와서 바로 깨끗이 씻었는데. 그런데 태안 기름 뱌새 장난 아니었다.

친구 : 태안 상황은 뉴스에서 보는 거랑 같아? 우리 내년에 놀러갈 수 있을까?
나 :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걸. 글썽, 내년에 갈 수 있으려나?

기름띠의 위협이 미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그저 망연자실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연일 메인뉴스는 태안으로 집중되어 있었고, 보도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접한 수십 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태안으로 모였다.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이미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해안가로 가서 기름을 닦아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취재하면서 인터뷰 했던 한명의 자원봉사자가 기억에 남는다. 어떻게 왔냐는 질문에 그 자원봉사자는 "여기에 이모가 사는데... 방학만 되면 여기 해안가에 와서 놀았었거든요. 좋은 추억이 많은 곳인데,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추억을..."이라고 하며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카메라에 이 모습을 담고 있는 나 또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여기에 모인 수 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여기에 왔을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 그들은 자신을 비롯해 타인들과 그리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비롯해 여기서 땀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때문이었을까? 태안 앞바다는 점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커멓던 모래사장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고 바다에 떠있던 까만 기름띠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손길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아쉬운(?) 출장을 마무리 하고 전주로 돌아오는 길, 피곤한 몸에 어느새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몇 년 전 태안에서 만들었던 좋은 추억이 생생하게 재연되었다. 그리고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다. 아마도 나도 취재하면서 희망의 햇살을 봤던 것 같다.

최지환 / YTN 전주지국 기자

이미 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 사고 현장을 가기위해 배를 타는 것은 불가능 하였고 헬기도 현 상황에선 뜸 수 없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한 상황과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태안 해경으로 향했다. 해경 도착 후 유조선(해비이 스피리트호)에 대한 각종 정보와 현재 상황을 브리핑을 통해 알 수 있었고 상황이 매우 심각함(국내 최대 원유유출)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날 이미 해경에는 수많은 방송사의 촬영기자들과 취재기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지난 95년 여수 앞 바다에서 일어났던 시프린스호 원유 유출사건(5천여 톤)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원유 유출사건(1만2천547kl)! 말 그대로 초대형사고이자 동시에 초대형뉴스였다. 일단 우리 팀은 전 날 풍랑주의보로 취재가 불가능했던 유조선 사고 현장에 가기 위해 해경 배에 몸을 싣었다. 여전히 해상은 바람으로 인해 3m정도의 높은 파도가 치고 있었다. 1시간 30여분이 흐르자 드디어 사고현장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바다 위에 한가로이 서 있는 크레인! 흰 유증기를 내뿜으며 어제의 재앙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유유히 바다를 표류하는 유조선! 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유조선 앞 부분 구멍에서 많은 양의 원유가 여전히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온 사람들! 두 팔 두 다리 다 건어 부치고 현장을 사수하고자 방제현장을 뛰며 달려달라고 언론사 취재진들을 붙잡으며 이야기 하던 사람들! 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깊은 슬픔과 절망감이 교차했다. 원주민들은 이제 허탈을 떠나 절망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사고 10일째 이미 눈에 보이는 기름은 상당수 제거되고 해안가는 제 모습을 찾아 가는

지금도 충남 태안 앞바다와 그 일대 그리고 군산 앞바다까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방제 인력들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점검하고 한 번만 더 조심하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람에 의한 재해에 매달리고 있다. 보다 철저한 사고 조사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직, 간접 피해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국민들의 참여가 이번 대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나 또한 앞으로 시청자의 눈과 귀로서 이번 태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시청자의 알권리 충족에 보다 만전을 다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뉴스에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며... 충남 태안에서...

심각현 / KBS 대전충국 보도팀 기자

그렇게 첫 날의 취재가 끝나갈 무렵 취재팀은 만리포 해안에 기름띠가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다.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즉시 최대한 zoom인 하여 카메라의 레코더 버튼을 누르고 높은 파도에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채 유조선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분명 어제 발표에서는 더 이상의 원



Know where | 촬영포인트 [2]

광화문 사거리에서 동대문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대문 쪽으로 가는 방향, 동화면세점 건물 뒤에 Officia라는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 옥상에 올라가면 옆의 '방송본'과 같은 부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촬영 협조를 해둔다면 더욱 좋겠지요. 물론 올라갈 때는 경비를 담당 하시는 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난간이 없는 옥상이니 촬영할때 조심하십시오!
오형 기자 ringring@mbc.co.kr



2008 신입 카메라기자

확실한 목표와 강한 의지로 알찬 한 해를!



SBS 신입 카메라기자 설민환

저들이 가지만 평생 잊지 못할 2007년

모든 이에게도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다사 다난했던 2007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는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한 해를 보냈다. 멀게만 보였던 카메라기자의 꿈을 이룬 것도, 카메라기자가 되어 현장에서 서 있게 된 것도 모든 것들이 새롭고 놀랍다. 하루하루 새로운 일과 현장을 접하면서 카메라 기자라는 직업이 가지는 매력에 매료되고 있다. 물론 매번 접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것들이지만, 계속해서 나를 설

레게 한다.

입사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습생활이 절반이 지나갔다. 모두들 입을 모아 수습기간이 혹독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간만큼 선배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시기도 없는 것 같다. 언제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고, 그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니 이처럼 좋은 시기가 또 어디 있으랴. 수습기간이 끝나면 아마 저도 쉽지 않을 것이고, 모든 말은 일에 책임을 져야 하기에 이 기간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새해에도 남은 수습기간 동안 열심히 배워 진정한 카메라기자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채워나갈 것이다.

알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목표부터 잘 세워야

2008년에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서 알차게 새해를 시작해야겠다. 먼저 새해에는 좋은 뉴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단 한 컷을 찍더라도 꾸준히 고민하고 연구할 것이다. 요즘 내가 찍은 한 컷, 한 컷이 실제 방송에 나올 때 마다 반갑기도 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영상을 찍기 위해 더욱 긴장해야

하고 촬영에 몰두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앞으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촬영하는 것이기에 시청자를 위한 더 나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이다.

다음으로 입사할 때 다짐했던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 잡을 것이다. 앞으로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쉬울 텐데, 그럴 때 마다 계속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머리 속에 기억해 둘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 속으로 곱씹으며 이를 실천해 나갈 생각이다.

끝으로 새해에도 계속해서 하루하루 촬영한 영상에 대한 평가와 현장분위기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질 것이다. 가령 개인 블로그와 같이 그날 촬영한 영상에 대한 칭찬과 고쳐야 할 부분 및 그 현장에서 유용할만한 아이디어들을 기록함으로써 다음 번에 같은 곳을 갈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영상취재를 할 수 있도록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KBS 신입 카메라기자 최만용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의 감동적인 순간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8년이 성큼 다가왔다. 나에게 2007년은, 2002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축구 경기를 통해 위상을 떨친 것과 같이, "카메라기자로서 인생의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꿈을 위해 달려왔노라고", "다양한 현장을 카메라에 정성스레 담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공명찬 전달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첫 발자국이 될 수 있었던 해이다.

소위 "언론고사"라고 불리는 방송사의 입사시험을 준비하면서, 또, KBS 한국방송의 카메라기자로 최종합격하기까지 수많은 자기반성과 미래의 꿈을 위해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의 대학생 명예카메라기자로서 활동하면서 훌륭한 선배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겐 희망이었고, 항상 슈퍼맨처럼 느껴지는 선배들의 친절한 가르침과 협회 회원사의 순환교육을 통해, 잠깐이었지만 카메라기자는 나의 꿈을 위해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협회의 다양한 직무연수 교육에 대학생 명예카메라기자 신분으로 함께 참여하며 현지 선배들의 생각과 고민을 부족하나마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꿈을 위해 달릴 수 있는 연료가 되었다.

물론, 좌절의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순간, 순

간, 나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믿고, 항상 옆에서 든든히 응원해준 가족들과 친구들, 선배들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한다. KBS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암수술을 받으신 우리 할머니, "할머니,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손자 만용이가 이제 KBS의 카메라기자가 되었어요. 이제 걱정 놓으시고, 빨리 쾌차하세요. 꼭! 건강하셔야 돼요."

역사의 현장에서 사실을 기록하는 사관이 되고 싶다!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다. 이제 카메라기자가 되기 위한 연수 교육을 앞두고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항상 한발자국 먼저 앞서 발로 뛰는 카메라기자가 되겠다고,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따뜻한 카메라기자가 되어 역사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건을 기록하는 카메라기자가 되겠다고, 이제껏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온전히 발휘하여 올곧은 사실을 기록하는 카메라기자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앞서간 선배들의 가르침과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열정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다.

호기심이 많았던 어린 시절부터, 채널 선택권을 갖고 계시던 아버지 덕분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다양한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었던 보도영상은 당시의 어린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주저 없이 대학교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었다. 운전 중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주저 없이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장소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느꼈던 많은 아쉬움이 이제는 해소되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 말이 있다. "자신의 네임수퍼에 책임감을 갖고, 역사의 현장에서 흔들림 없는 시각으로 보도영상을 기록하는 KBS의 카메라기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2008년 새해에 해본다.

迫力手打
를 향한 열정의 스파이크!
프로배구 대개막

주최 KOVO 한국배구연맹 후원 NH 농협 오리인스프링 D-11m 주관 방송사 KBS1 KBS2 관공급업체 STAR asics

3라운드 경기일정

경기일자	요일	시간	구분	출 팀	방 문 팀	장소
1/5	토	15:00	남	삼성화재	LIG손보	대전
		17:00	여	KT&G	도로공사	
1/6	일	14:00	남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인천
		16:00	여	GS칼텍스	흥국생명	
1/8	화	17:00	남	한국전력	상무	수원
		19:00	여	현대건설	KT&G	
1/9	수	17:00	남	한국전력	삼성화재	수원
		19:00	여	흥국생명	도로공사	천안
1/10	목	19:00	남	현대캐피탈	LIG손보	천안
		19:00	남	대한항공	상무	인천
1/12	토	15:00	남	현대캐피탈	상무	천안

경기일자	요일	시간	구분	출 팀	방 문 팀	장소
1/13	일	14:00	남	대한항공	삼성화재	인천
		16:00	여	GS칼텍스	KT&G	
1/15	화	16:00	남	LIG손보	한국전력	구미
		16:00	여	도로공사	현대건설	
1/16	수	17:00	여	흥국생명	현대건설	천안
		19:00	남	현대캐피탈	한국전력	
1/17	목	17:00	여	도로공사	GS칼텍스	구미
		19:00	남	LIG손보	대한항공	
1/19	토	19:00	남	삼성화재	상무	대전
		15:00	남	LIG손보	상무	구미
1/20	일	14:00	남	한국전력	대한항공	수원
		16:00	여	현대건설	GS칼텍스	
1/20	일	14:00	남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대전
		16:00	여	KT&G	흥국생명	

인천대한항공전보스 대전삼성화재물류부스 구미LIG손보로고라이프스 천안현대캐피탈스카이워커스 상무 한국전력 GS칼텍스 KT&G아리엘스 현대건설그린룩스 흥국생명크로스피어스 한국도로공사

2008년을 맞이하는 나의 각오



KBS 신입 카메라기자 최제혁

최종면접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1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순간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말았다.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이 열렸고, 1분의 시간은 흘렀다. 그것은 질문에 답한다는 의미보다는 카메라기자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준비해왔던 사람으로서의 반성의 시간이었다.

그동안 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안방에서 국내외의 생생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다. 들여다 보면 그분들을 닮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은 모두 나의 욕심,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 단지 나의 하찮은 잣대로 잘했다고 생각된 영상은 보는 사람들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카메라기자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에 시청자는 없었다. 시청자들은 카메라기자의 영상은 진실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 또한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그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다. 그것은 분명 선배들이 현장을 발로누비며 흘린 땀의 대가일 것이다. 그런 소중한 역사적 자료들을 매순간 접했으면서도 정작 내 마음 속에는 시청자의 믿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 무자년(戊子年) 새해에는 진실한 영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현장에서 서고 싶다.

"렌즈에는 3가지 기능을 하는 링이 있습니다. 카메라 기자는 녹화버튼을 누르기 전 이 세 가지 링을 조정합니다. 누가 조정하느냐에 따라 영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포커스 링을 조작함으로써 무엇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사실에 대한

깊이 있는 판단을 포커스링을 통해서 표현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명확한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줌링을 움직여 현상에 대한 진실 된 크기를, 사실에 대한 올바른 무게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의 수용자들이 한쪽으로의 쏠림 없이 바른 크기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조리개를 조절함으로써 세상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모두 보여주세요. 두 부분이 언제나 적정노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적어도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 링이 올바르게 조정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국민의 방송 KBS의 카메라 기자로서 역사의 현장을 찾은 것이다. 우리 사회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나갈 것이다. 나부터가 올곧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채울 것이다.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카메라는 전국의 아니 전 세계의 시청자들의 눈이 되어 나와 함께할 것이다. 아직은 그 무게가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순 없지만 분명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무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겐 열심히 땀 체력과 자신감이 있고, 선배님들이 곁에 계신다. 내 어깨 위에 얹어진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할 것이다.

새해에는 국민들의 눈과 귀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진정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카메라기자가 되고 싶다. 선배님들이 써나가고 계신 역사서의 한 페이지를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다. 이제는 카메라기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 카메라기자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 믿음 때문에 카메라기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2008년은 그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한해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 KBS 신입사원의 패기라 나의 각오를 실천해 나가고 싶다.

새해 소망 릴레이

시작은 언제나 설렘과 두려움을 동반한다!



MBC 신입 카메라기자 이종혁

안녕하십니까? 2008년 MBC 신입 카메라 기자 이종혁입니다. 카메라기자를 준비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쓴 글을 <미디어아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왔습니다.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 정말 믿음이 됩니다. 제가 쓴 글이 이렇게 <미디어아이>의 한 페이지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설렘과 두려움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 카메라기자로서 새 삶을 시작할 제 마음 또한

어김없이 그 두 감정으로 변잡합니다. 그렇다면 설레는 마음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꿈꿔왔던 카메라기자의 삶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합니다. 카메라기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ENG를 들고 역사의 현장을 누비는 내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내 손으로 담은 보도영상을 본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 모든 상상은 2008년부터 더 이상 상상에서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카메라기자가 되었다는 꿈을 이루었고 이제 그 꿈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를 채워야 하는 순간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채우고 될 2008년 카메라기자로서의 시작을 언제나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 속 나머지 반을 채우고 있는 두려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내 스스로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예전 협회 회보를 읽을 때 내 뇌리를 스친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봐야 국민이 본다'는 카메라기자의 기본적인 사명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 문구를 접한 후 수많은 의미

를 되새겨봤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올바르게 영상으로 담아야만 왜곡되지 않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보다 근원적인 결론을 나름대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카메라기자가 된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회의를 품은 채 2008년부터 카메라기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08년 1년의 기간 '내가 봐야 국민이 본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것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기자를 준비하면서 협회 회보 <미디어아이>를 술하게 읽어왔습니다. 이 회보를 통해 선배님들이 현재 자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또한 영상저널리스트에게 필요한 소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카메라기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2008년 한 해, 도리와 기본을 착실히 쌓아 나가겠습니다!



KBS 신입 카메라기자 최경민

개인적으로 기억할 만한 일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던 2007년도 어느덧 그 끝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중에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빨리 잊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일도 많았다. 이처럼 많은 일을 일어나던 중 영원히 잊지 못할 만한 일이 일어났으니 바로 그토록 원해왔던 직장에서의 원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난 오랜 시간동안 꾸어왔던 꿈을 이루게 되었고 날 도와주고 지켜보았던 고마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할 수 있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다. 이제 며칠남지 않은 올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면 나는 카메라기자라는 신분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다.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머지않아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될 나로서는 하나 둘 펼쳐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할 것이라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

2008년부터 시작할 새로운 레이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어왔던 그 어떠한 레이스보다도 길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레이스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장거리레이스를 훌륭히 완주하기 위해서는 좋은 스타트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레이스 초반에 무리하게 뛰어나가면 오버 페이스로 완주는커녕 오래가지 않아 레이스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초반

에 너무 뒤로 쳐져 버리면 마지막에 아무리 속도를 낸다하더라도 선두를 따라잡는 일은 요원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카메라기자로서 보낼 2008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향후 오랜 시간 지속될 레이스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다.

좋은 카메라기자가 되기 위하여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배움의 과정에는 힘든 길을 먼저 닦아주시는 선배님들의 좋은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배움에 있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조급해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게으름 피우거나 나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2008년 한해는 카메라기자로서의 도리와 기본자세를 착실하게 다져나가며 보내고 싶다.

2008년에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에 희비의 쌍곡선이 그려졌다 지워지는 일은 희극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즐기는 자는 천재를 이길 만큼 즐거움 속에 숨어 있는 힘은 크다. 즐기면서 능률은 오르고 숨겨져 있던 잠재의식도 깨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로 내가 속한 조직에서 두 배로 즐겁게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이등병에서 상병으로!



SBS 신입 카메라기자 김태현

오후 두 시가 넘는 시간. 정장차림의 두 사내가 여의도공원 산책로를 두 바퀴째 달리고 있다.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거친 숨을 내쉬며 무엇을 찍을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는 모습일수도 있지만, 그들은 반복된 실수로 인한 열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수습 카메라기자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다소 과장된 표현일수도 있지만, 설 말이 다 되어가는 지금 입장

에서는 많은 걸 느끼게 해 준 계라고 생각한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ENG카메라를 들고 발로 뛰며 취재해야 하는 카메라기자의 직업적 특성을 단기간에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수습 교육을 받으며 느낀 것은 마치 '군대'를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이등병은 노란 견장을 달고 부대 이곳 저곳을 뛰어 다닌다.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왔다는 것에 차이는 있었지만, 업무 특성이나 조직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지금의 나와 큰 차이가 없다. '수습'이란 타이틀도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거듭된 교육 과정을 거쳐 선배들이 말하는 소위 전쟁터에 투입될 것이다.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 가장 큰 것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취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만큼 그에 따른 결과물에 책임을 지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 다수의 시청자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으로 그들을 대표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카메라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노력의 예를 들어보자.

먼저 취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체력이야. 30도를 넘는 무더위 혹은 살을 에는 듯한 추위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뉴스 영상을 취재할 수 있는 강한 체력의 카메라기자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인성(人性)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카메라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면을 완성해나 가야 한다. 영상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식이다. 아무리 뛰어난 체력과 인성을 지녔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을 알지 못하면 영상을 표현할 수 없다. 카메라기자는 화면을 통해 세상을 보여주는 역할인데 업무에 대한 파악이나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변화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나의 2008년!



MBC 신입 카메라기자 김신영

'시작'이라는 말처럼 가슴 설레는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올해 신입 카메라기자로 선발되어 이제부터 수많은 선배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있는 힘껏 따라 가아하는 저에게 있어 2008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남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내딛는 첫발, 그

시작을 예전부터 그토록 원했던 카메라기자 신분으로 힘차게 내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터질 것처럼 설레는 일입니다. 무서우리만치 빠르고 뜨겁게 돌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최 일선에서 보고, 느끼고, 취재한다는 것은 시대의 기록자인 카메라기자만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전 아직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않은 풋내기엔 불과함비나 다름이 아닌 인생 여정의 출발선상에, 그것도 너무나 뛰고 싶던 경기장의 출발선상에 이제 막 들어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장은 두근번 세근번 거침없이 요동칩니다.

물론 걱정도 태산입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기로 뚫어갈라면 서러운 '대학생' 신분을 마감하고 '사회인'의 반열에 힘겹게나마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회.인'이라는 불과세 글자의 짧은 단어에서 느껴지는 무게감과 위압감, 책임감은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는

것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방송환경의 특수성, 오늘 출근을 나눈 타사 입사 동기도 내 일이면 경쟁자라 돌변할 수 있는 취재환경의 냉혹함, 지금껏 수많은 선배들이 고군분투하며 뛰어놓은 업적들에 누를 끼치지 안 된다는 막중한 부담감...

걱정 많습디다. 새로운 환경을 앞두고 있는 긴장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 안에서 혼술만 취고 있는 공상만은 모습은 패기 넘치는 신입 카메라기자와는 너무 안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정정당당히 맞서 부딪히고 깨지며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녀석을 세상 사람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기준으로 설정한 '8760 시간'입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제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치열하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한 번 달려보겠습니다.

2008년, 사칙연산을 생각하며



MBC 신입 카메라기자 정인혁

나의 2008년은 카메라기자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해이다. 내가 원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설렘, 평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동시에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과유불급의 뜻을 되새겨보면 설렘과 긴장감이 균형 있게 교감돼야 최적으로 내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2008년 다짐을 사칙연산에 미리 대입해 보고 연말이 됐을 때 정답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껴보고 싶다.

2008년 더하기(+)

2008년 카메라기자 신입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들을 하나하나 배우며 더해 나갈 것이다. 간절히 바란던 꿈을 이뤄 냈지만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 그 꿈에 머물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관심을 갖고 깨닫게 되어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카메라기자의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진솔하게 알아가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2008년 빼기(-)

그동안 입사 준비생의 입장에서 생활하며 잘못 길들여진 습관들을 떨쳐낼 것이다. 계획적으로 짜놓은 공부계획을 성실히 이행했지만 때론 힘들 때마다 미루는 습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목표의 초점을 흐리게 한 경우도 있었다. 생생한 현장을 곧바로 달려야 하는 카메라기자에게 미루는 습관은 치명적이다. 오늘의 뉴스를 내일로 미뤄 전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미루는 습관을 꼭 털 것이고 조금씩 붙여왔던 살도 빼야겠다.

2008년 곱하기(x)

나의 잠재력을 두 배로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회사를 높이터로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도 했다. 즐기는 자는 천재를 이길 만큼 즐거움 속에 숨어 있는 힘은 크다. 즐기면서 능률은 오르고 숨겨져 있던 잠재의식도 깨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로 내가 속한 조직에서 두 배로 즐겁게 일할 준비가 돼 있다.

2008년 나누기(÷)

내적으로는 동료, 선·후배들에게, 외적으로는 시청자들에게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바쁜 현장에서는 힘들수록 따뜻한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싶다.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믿을 수 있는 보도영상을 시청자들이 보게 되면서 서로가 신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꿈꾸는 한해, 꿈을 이뤄가는 한해가 되길



KBS 신입 카메라기자 조세준

사람은 잠을 잘 때 꿈을 꾸다. 귀신에게 쫓기는 무서운 꿈, 롤러코스터를 타는 신나는 꿈, 사모하던 사람과 만나는 환한 꿈. 그리고 잠을 자지 않을 때도 꿈을 꾸다. 시험에서 100점을 맞겠다는 꿈,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겠다는 꿈. 꿈이란 무엇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 가지 꿈 모두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상상한다는 것이다.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 머릿속으로 먼저 그곳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꿈을 미래로 만든다. 꿈꾸는 것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빠르게 달리고 싶다는 꿈은 자동차를 만들었고 새처럼 날고 싶다는 꿈은 비행기를 낳았다. 날고자 하는 꿈은 우주로 뻗어나가 사람이 달에 발을 내딛게도 만들었다.

우리가 꿈꾸지 않고 현실에만 안주했다면 수만 년 전의 원시인과 다를없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을 것이다. 어렵고 힘들지만 꿈꾸고 노력한 결과 오늘에 이르렀고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지 않다면, 보다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꿈을 꾸어만 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작정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이런 믿음은 카메라기자라는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난 더 큰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가슴에 따뜻한 열기를 느끼고 싶어 한다. 꿈을 계속 꿀 수 있어 행복하다. 이 행복함을 위해 어제의 나처럼 오늘도 꿈을 꾸고 노력할 것이다. 나처럼 꿈을 꾸는 모든 사람에게 'A. 단테'의 말을 전해 주고 싶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체에 가치가 있어야 한다. 큰 성과(꿈)는 가치 있는 일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속 있는 성과(꿈의 실현)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초보고, 일본 자위대 이렇게 만들어진다



군대 아닌 군대, 자위대

자위대! 군대가 아니면서 최신 이지스함과 잠수함 그리고 최첨단 비행기로 무장한 군대 아닌 군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로 상징되며 동북아시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두려운 조직! 우리가 아니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자위대다.

일본은 모병제 개념을 채택한 국가다. 즉, 원하는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조직이다. 과연 어떤 젊은이들이 그 고생길(!)로 간단 말인가? 그 사람들은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 자위대원으로 성장하며,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군인의 길이란 무엇일까? 이번 프로그램은 이런 의문에서 출발했다.

자위대원이 말하는 자위대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내레이션 없이 자위대원의 목소리로만 전체를 끌고 나가려 했다. 방위대학교, 간부학교, 중앙측응집단 등 자위대 양성 교육생들을 밀착 취재해서 그들의 가치관과 국가관을 진솔하게 보이고 싶었다. 그러나 취재 첫 날 방위성은 우리의 기대를 무참히 잘라버렸다. 그들이 허용한 시간, 공간, 인물에 한해서만 취재가 가능하며 어떠한 연출도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방위성과 자위대는 KBS에게 취재를 허가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불신하고 있는 듯 했다. 멀고도 가까운 한·일 간의 미묘한 거리만큼! 전체적인 틀이 깨져버린 상황에서 방위성 측과 의견

충돌은 불가피 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 당연한 결과였던 셈이다.

취재기간 내내 우리와 동고동락을 함께한 방위성 국제홍보팀 아끼오시 상,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 쫓아다니며 간섭하고 제한하고 그 날 취재 내용을 잊는데 보고하고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오하오우'를 웃으며 인사하는 전형적인 일본공무원이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바른생활 사나이, 정해진 규칙과 시간표를 틀어대며 끊임없이 경고를 남발하던 그와 특히 많이 충돌했고, 그때마다 폭탄주를 먹으며 우리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설득했다. 결국 우리의 취재가 단순하게 자위대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첨병이라는 단편적인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자위대원이 말하는 자위대를 보여주기 위함은...

시작하고 5분을 버티라

다큐멘터리 제작하면서 항상 하는 고민이다. 5분 이내에 흥미를 끌지 못하면 채널은 돌아가게 마련이다. 특히나 시사기획 '쌈'은 밤 11시 30분이라는 취미 시간대에 오락 프로그램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프롤로그는 시청자에게 호기심과 시선을 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영상 기획자로서 카메라기자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자위대"의 경우 쉽게 생각하면 화력시범, 이지스함, 훈련 모습 등 좋은 컷들을 짜집기해서 적당

히 긴장감 있는 음악을 입혀도 된다. 그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프롤로그다. 그러나 프롤로그는 의외성이 있으면 금상첨화다.

자위대 프롤로그는 언젠가 영화에서 본 장면을 상상하면서 구성했다. 조용하게 흐르는 비장한 음악과 함께 제복을 정성스럽게 입고 있는 자위대원, 국기 게양과 함께 울려 퍼지는 일본 국가, 파란 하늘에 나부끼는 일장기, 일장기 펄럭이며 파란 하늘 바탕에 제목이 들어간다. 만약 사전에 치밀한 콘티가 없었다면 단, 10분 안에 그 장면을 완성하기란 불가능 했을 것이다.

승부는 현장에서

NLE의 출현은 좋은 앵글, 좋은 영상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는 마약이다.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분할하고 화려한 효과를 적용하고 싶어 하는 나를 발견한다. 이번 자위대는 최대한 컷 편집만 고집했다. 그러려면 현장에서 모든 과정을 후회 없이 마무리해야 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좋은 그림 나올 때까지 얼마든지 연출을 해주지만 자위대는 그렇지 못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순간순간 벌어지는 상황을 최대한 밀착해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숨소리 하나하나를 실감나게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도쿄대 출신 육상 자위대 간부학교 후보생인 '아끼' 양의 장애물 훈련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밀착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대형 후배 카메라 기자가 같이 동행했기에 아주 역동적

으로 훈련 장면을 담을 수 있었다. 역시 현장 냄새가 물씬 풍기는 앵글, 카메라기자의 고민과 땀방울이 담겨 있는 그림은 지금 다시 보아도 생명력이 오래간다는 소박한 진리를 깨달았다.

자위대의 훈련 과정은 전체적으로 국군과 비교하자면 오히려 처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훈련에 임하는 자위대원은 정말 진지했고, 눈빛이 살아 있었다. 투철한 국가관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일본인을 위해 봉사한다는 신념은 요즘 병역 의무에 임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과 비교하면 훨씬 뛰어난 것이다.

일본은 군대를 가지고 싶어 한다. 과거의 침략하는 군대가 아닌 보통 국가인 일본을 지키는 개념으로서 자위대는 군대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라크 등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 또한 일본 국민들에게 화력 시범 훈련 과정을 공개하고, 이지스를 개발하고, 요코스카 수상 공원 근처에서 잠수함을 정비하면서 친근감을 가지려 한다.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자위대의 실체를. 다만 그들이 가장 경계하고 싶어하는 것은 알 것 같다. 그것은 자위대가 전 세계에 과거 군국주의의 부활로 알려지는 것이다.

신동근 / KBS 보도본부 영상편집제작팀 기자

이어지는 인터뷰 시즌2

MBC 보도제작국 시사영상부 심승보 부장



지난 30호까지 연재된 후 끝을 맺었던 '이어지는 인터뷰'가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돌아왔다. '이어지는 인터뷰 시즌2'의 첫 주인공은 다큐멘터리 '역지사지'로 이성수 부장과 함께 2007년 한국방송카메라기자대상(大賞)의 영예를 안은 MBC 시사영상부의 심승보 부장. 심 부장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17·18대 회장을 역임했다. 이제 그를 만나보자.

우선 제21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성수 부장님과 공동으로 수상을 하셨는데요.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뒤늦게 수상소감을 얘기 하거나 어색하다. 그래도 한 마디 하자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 내가 내 자리에 있는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 뿌듯했다.

이다. '열정'이 있으면 준비한다. 나는 내 '열정'이 시키는 대로 매일 운동을 하며, 하루 2편 이상의 영화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색채학'이나 '광학'을 엿보거나, 틸름이 스테디캠과 써플링 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영상 트렌드를 알아버리지 않으려 한다. 이런 것들이 내가 만드는 작품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큐멘터리 '역지사지'가 영상 면에서 새롭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다큐멘터리 '역지사지'의 영상은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나는 새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영상들은 이미 영화나 CF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지사지'의 영상을 보고 '새롭다'고 평가를 한다. 그들은 게으르거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2008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 요즘 나는 색(color)에 푹 빠져있다. HD 방송장비를 접하면서 색(color)의 세계가 무궁무진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HD영상은 그냥 색상이 화려하다고 말할게 아니라 화려한 색상을 무한한 색감을 가지고 담아낼 줄 알아야 한다. 카메라기자는 프로이다. 프로는 시청자에게 그 상황에 대한 느낌을 120%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 '색(color)'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무자년 새해에는 지금까지 공부하고 정리했던 것을 바탕으로 HD 영상색채에 대한 책을 써보고자 한다. 카메라기자의 입장에서 '보도영상과 색(color)'에 대해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2008년 새해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이다.

시청자들은 이미 그들이 '새롭다'고 평가하는 영상에 익숙해져 있다. '역지사지'는 그런 시청자들의 요구에 맞춰 제작되었을 뿐이다. 시청자는 때론 명품브랜드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어 한다. 역지사지는 그런 시청자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연스레 그들의 호응을 얻은 것뿐이다. 대중성을 가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다. 흔히 대중성하면 선정성을 연상하는데 그건 오해다. 촬영이든 연출이든 모든 기량이 총체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대중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도 시청자를 위해 제작되는 장르이다. 그렇다면 시청자가 보고 싶어 하는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일 것이다.

새해를 맞아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새해에는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확고히 했으면 좋겠다. 카메라기자를 위한 많은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원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으면 한다. 또 2008년 한국방송카메라기자상 출품작들은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우수한 작품들이 많기를 기대한다. 대상(大賞)은 출품작 모두가 공동수상으로 결정되는 취해(戊子年)가 되길...

다큐멘터리 '역지사지'처럼 시청자의 공감을 얻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노력'과 '열정'이다. '열정'도 '남다른 열정'이어야 한다. '노력'과 '열정'이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다고 본다. 나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내 자리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일에 대해 '열정'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귀찮아하는 것을 찾아서 한다. '열정'은 좋아서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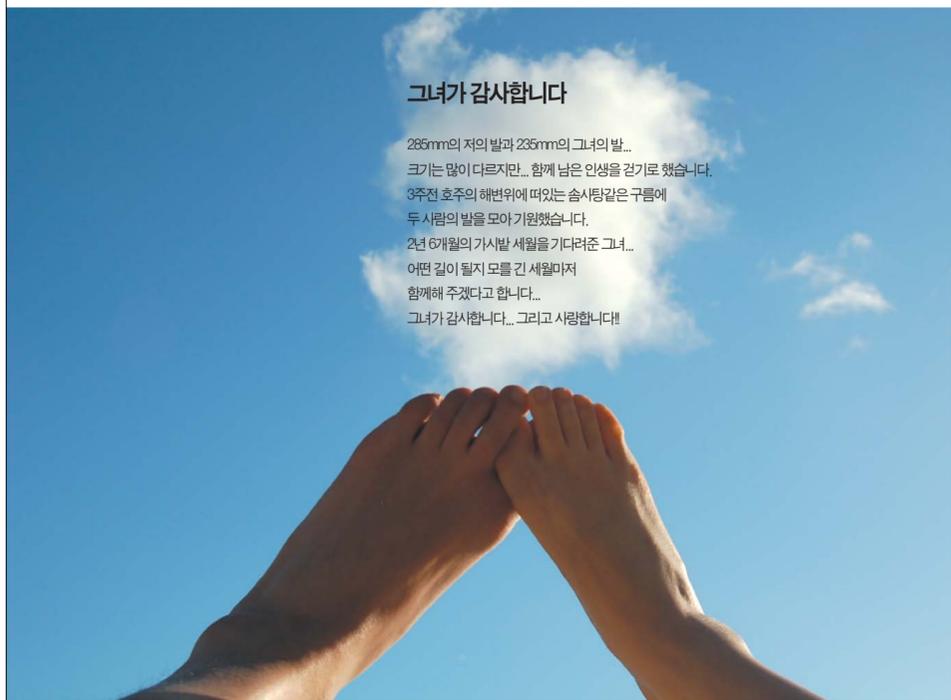
안양수 기자 soo179@hanmail.net

포토에세이

조성진 / OBS경인TV 영상취재팀 기자

그녀가 감사합니다

286mm의 저의 발과 236mm의 그녀의 발... 크기는 많이 다르지만... 함께 남은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3주전 호주 해변위에 떠있는 솜시랑같은 구름에 두 사람의 발을 모아 기원했습니다. 2년 6개월의 가시발 세월을 기다려준 그녀... 어떤 길이 될지 모를 긴 세월마저 함께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녀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추천하고픈 책



자투리 시간 이용한 두뇌개발 한판, 어떠세요?

IQ148을 위한 멘사 논리 퍼즐

2주 전쯤인가? 사무실로 책이 배달됐다. 남편이 주문한 것이었다. 상자를 받았는데 목격한 것이 한 두 권이 아닌듯했다. 열여섯 권의 책이 들어있었다. 이 여섯 권의 책은 다름 아닌 '아이큐 148을 위한 멘사 시리즈'. 몇 권을 들춰봤는데, 살짝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그 여섯 권의 책을 들고 경경거리면서 버스를 탔는데 심심한 마음에 그 중에 한 권을 펼쳐봤다. 그런데 이놈의 책이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이랄까, '마력'이랄까, 그런 것이 있었다. 너무 집중을 했는데, 내가 내려야할 정거장을 지나칠 뻔했다. 이 책은 1964년 영국에서 창설되어 현재

100여 개국에 10만 여명의 회원이 속해있는 지능지수 148이상의 사람들의 모임, 멘사의 즐거운 유희, 멘사 퍼즐이다. 어지럽게 얽힌 도형, 뜻을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문자와 숫자들은 수학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에 가깝다. 훈련된 계산력이나 요령이 아니라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는 147개의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잡하게 흩어진 작은 정보 조각들을 바탕으로 답을 찾아나가는 유형의 문제가 많다. 설록 흠즈가 손의 생김새, 구두의 마모 상태, 마차 바퀴에 묻어 있는 흙의 종류

등 단편적인 정보로부터 처음 보는 사람의 직업을 단 몇 초 만에 정확하게 추리해 내던 것처럼 무관한 듯 흩어져있는 정보 조각들의 논리적 연관성을 찾아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마다 내 머리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되어 간다는 느낌(착각?)이 든다. 멘사 회원이 되고 싶어 라기 보다는 내 두뇌 운동차원에서 혹은 시간 때우기 용으로 매우 좋은 책인 것 같다. 특히 잠 못 드는 외로운 밤이 지더라도 길게 느껴질 때 이 책을 강력 추천한다. 이 문제 두 개만 해결하면 창밖으로 환하게 동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안양수 기자 soo179@hanmail.net

그 나라가 먹고 싶다 - 스페인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 스페인

취재목적

스페인에는 '카미노 데 산티아고'가 있다. 우리말로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는 뜻인데 예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무덤까지 가는 순례길을 가리킨다. 과거 이슬람 세력과 가톨릭이 합쳐투기를 할 때 접경지역에 위치한 산티아고의 무덤은 종교적인 순례지역이자 독립운동의 활력소였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양금을 생각할 때 목도를 마치 성지처럼 떠 올리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다. 취재팀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또는 스포츠의 목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취재를 시작했다.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 수 있는지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빌려 담아내고자 했다.



고 영어에 자신 있는 기자라도 이점에서 당황할 수 있다. 미주, 유럽 등의 나라에서는 스페인어가 제2외국어 정도 되고 남아메리카는 1개 나라를 제외하고 전부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굳이 영어에 목매 필요없는 나라가 스페인이다. 그들이 관광객들을 위해 영어를 사용하리라 기대하지 말 것. 재미있는 것은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계속 떠드는 것이 스페인 사람들의 수다. 도중에 말을 끊는 행위가 무례하다고 생각하므로 요령껏 행동할 필요가 있다.

취재 시 참고 사항

순례길을 취재하는 다큐가 목적이거나 보니 영상송출 등 일반적인 출장에서 급하게 요구되는 어려움은 없었다. 그 대신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 얘기를 듣다 보니 언어나 습관에서 생각의 차이가 많아서 어려웠다. 비슷한 성격의 해외 출장을 기획하고 있는 기자라면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 (1) 먼저 스페인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좋아한다는 점이다. 그것도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답하기 위한 배경설명에서 부연설명까지 장황하다. 그리고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이다. 인터뷰 사용 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할지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럽다. 통역을 해주는 이에게 방송의 특성을 주지시키고 미리 상의할 필요가 있다.
(2) 스페인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외 출장경험이 많

- 시도한다. 구두로만 요청하는 것은 효력이 미미하다. 이메일을 미리 보내고 취재현장에 찾아 가는 것과 그냥 부딪히는 것은 차이가 크다.
(6) 취재차량은 디젤 수동변속 차량이 선택의 폭이 넓다. 현지에서 운전할 때 필요할 것 같으면 국제 면허증과 한국 면허증을 같이 지니고 있어야 합법적인 운전자로 인정한다. 무리해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은 자제. 잘못하다간 '딱지'가 아니라 끌려간다. 스페인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교통법이 특징. 과속도 제한속도보다 얼마나 많이 위반했는지에 따라 벌칙이 달라짐.
(7) 한국에서 고속인터넷에 익숙한 기자라면 주의. 호텔에서 'high speed internet'을 제공한다고 다 믿지 말 것. 절대 'high speed'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전화선 인터넷 시절에도 항상 광고는 초고속인터넷이었다는 사실을 스페인에서 실감하게 된다.
(8) 스페인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지식이 필요하다면 <스페인 역사 100장면 : 이강혁 저>를 추천.

협조

프랑스,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에서 관광수입이 많은 나라로 손꼽힌다. 하지만 스페인의 관광수입은 이들 두 국가보다도 많다. 스페인 관광청의 해외 언론 지원도 훌륭한 편이다. 급하게 일정을 잡는 무리수만 두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출장에서는 헬기 촬영을 할 때 업체선정과 항공촬영허가 등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취재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었다.

현경

- a) 시차 - 한국보다 8시간 느림
b) 전기 - 일반 220V 그대로 사용가능
c) 기후 - 북부는 우리나라와 비슷(해양성 기후), 중부는 건조(대륙성), 남부는 일년 내내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
d) 낮잠 - 씨에스타 시간(오후1or2시~6시)에 문을 닫는 상점, 관공서가 많지만 'Bar'에서 간단한 음식은 판다. 하지만 식당에서 요리는 최소한 오후 8시가 지나야 주문가능.
e) 물가 -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 싼 편. 커피는 1~1.2유로가 보통. 한국 식당은 1인당 30~40유로. 순례길이 발달한 스페인 특성상 '순례자 메뉴'가 가능한 식당이 있는데 가격은 8~12유로 정도로 코스 식사. 와인은 한국인이 생각하기에 매우 저렴해서 일반 식당에서 1~3유로면 하우스와인 한 병 가격.
f) 안전 - 변화가에서는 소매치기 등이 활발하고 있음. 이들 소매치기들은 걸려도 뻔뻔함. 장비관리에 주의 필요.

통신

유럽에서 사용하는 핸드폰(GSM방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칩(SIM카드)만 같은 통신회사를 찾아서 구입하면 가능. 스페인에서 'movistar' 라는 통신회사가 점유율이 가장 높음. 'orange'는 프랑스에서 많이 이용하므로 출장 준비 시 참고 할 것. 'vodafone'은 여기서도 일반적. 참고로 스페인에서는 통신 회사 간 칩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 설정이 합법적인데 12유로 정도 소요. 시내에서 핸드폰을 오픈시키면 아무 회사 칩이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 한국에서 가져간 핸드폰 중에서 WCDMA 폰은 로밍도 가능하다. (일반 CDMA폰은 불가)

공진구 / SBS 영상취재팀 기자

Easy English

* 오르단공명에 도착해서 취재내용을 설명하고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

[A : easy man(이지맨), B : immigration officer(입국심사관)]

<본문>

A : Hello, I am Easyman from Media Eye, I want to get a visa.
B :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to Jordan?
A : I'm here to cover Petra, a tourist attraction of Jordan.
B : The visa is valid for 2 weeks and it costs 10 dollars.
A : How can I apply for an extension of stay when the coverage takes longer than expected?
B : You may apply for an extension of stay with your passport and visa in the near police station.
A : Thank you for your help.
B : You're welcome. Have a good day.

<해석>

A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방송사에서 온 이지맨입니다. 비자를 받고 싶습니다.
B : 오르단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A : 요르단의 관광명소인 페트라를 취재하려고 왔습니다.
B : 비자는 2주간 유효합니다. 비자발급비용은 10달러입니다.
A : 취재가 지연되면 비자연장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B :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여권과 비자를 제출하고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A :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B : 천만에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장재현 기자 kap1112@naver.com

강추! 맛집

보영만두

추운 겨울, 따뜻한 국물이 생각 날 뻔-!!!! 본격적인 한파로 몸이 움츠러드는 12월, 찬 기운에 옷깃을 여미는 날이 계속될 때면 따끈한 국물이 절로 생각난다. 이럴 때 뜨끈한 사골국물에 부드러운 만두가 어울린 담백한 만두국은 어떨까. 헛헛한 속도 채워주고 따뜻한 국물로 추위를 녹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음식이다. 소개하려는 곳은 바로 수원 장안문 앞에 위치한 소문난 만두집 <보영만두>의 만두국이다.



담백한 사골국물에 고기와 야채가 가득 들어있는 만두의 환상적 앙상블. 한입 먹는 순간 입안 가득한 부드러움과 고소함. 특히 얼리지 않은 생고기를 사용한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절인 배추·숙주·한우·돼지고기 다진 것을 갖은 양념으로 무쳐 소를 만든 고기만두, 직접 담근 김치에, 두부, 당면, 숙주를 배합한 김치만두는 그냥 먹어도 기하 일품이다. 흔히 접하는 단출한 분식집 분위기를 풍기고 반찬도 배추김치에 깎두기, 단무지 정도로 기본적인 감칠맛 나는 만두국과 입에서 살살 녹아내리는 만두는 이곳을 다시 찾게 한다. 식사시간이면 고객들이 몰리는 통에 식당 앞에서 줄서서 기다려야 하지만 대부분 별 불만 없이 미리 만두국이나 만두를 주문하며 차례를 기다린다. 풀면은 양배추와 콩나물과 함께 주는데 탄탄하게 씹는 맛에 새콤달콤 매콤한 맛이 반갑다. 맛도 맛있지만, 모든 음식이 3000원 대중적인 가격으로 거품을 없애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홍렬 기자 orchidn410@obs.co.kr

충주MBC 이재은 사장 2007년 보훈문화상 수상

충주MBC 이재은 사장은 2007년 보훈문화상 교육홍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보훈문화상은 보훈정신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가 류자명 선생의 현창사업을 방송매체를 통해 적극 소개 및 홍보했을 뿐 아니라 유품 전시회 개최, 관련 자료집 CD 제작 및 보급, 기념식 개최 등 류 선생의 업적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했다며 이재은 사장의 수상자 선정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달 26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렸으며, 수상자와 가족, 보훈단체장과 관련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양수 기자 soo179@hanmail.net

동정

<경조사>

- 12.11 YTN 김학목 차장 모친상
12.16 KBS초소방송국 김영선 기자 부친상
12.22 MBC 이성수 부장 장남 결혼

건강칼럼

영원한 직업병 어깨 결림

항상 무거운 카메라를 매고 다니는 분들, 모니터 앞에 앉아 밤을 지새우는 분들, 어깨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깨라고 이야기하는 부위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몸통과 팔이 연결되는 어깨관절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목덜미와 어깨 관절의 가운데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어깨는 후자입니다. 어깨 결림이 심해지면 목 위가 뻐뻐한 소위 뒷골이 땅기는 증상으로 진행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두통 그리고 눈의 피로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어깨 결림이 심하고 만성화된 분들은 근육 이완제나 진통소염제라도 잘 안 좋아합니다.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안마도 받아보고 경락도 받아봤지만 그때 뿐, 조금만 지나면 다시 아픕니다. 침도 맞아보고 부항도 해 보고 한약도 복용을 해봤지만 그다지 만족스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을 긴장시킵니다. 이것이 만성화되면 어깨가 단단하게 되며, 항상 무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습관적 긴장 및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이 앞으로 빠져있으면서 이를 잡아 주기 위해 뒷목에 위치한 어깨 근육들이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이를 바로 잡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빠져 있는 목을 제 위치로 잡아 주고, 어깨의 만성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근육의 근막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허리와 가슴을 펴고서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머리의 위치를 제자리로 당겨주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미 목 주변의 근육과 관절이 굳어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머리가 돌출되어 있다면 체형 추나요법을 통해 일자로 된 목의 관절들을 제자리 잡아 주고, 만성적으로 긴장돼 있는 어깨 근육들을 바로잡아 주어 어깨의 긴장을 풀어줘야 합니다.

목에서 오는 어깨 결림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목 디스크나 척추의 비틀림, 또는 주변의 인대에 의해 눌리거나 자극을 받으면 통증이 단순하게 목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어깨나 등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 어깨가 무겁다기보다는 어깨 위쪽이 시큰거리거나 짜릿하게 통증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몸살이라도 난 것처럼 살만 닿아도 피부가 따끔따끔거리면서 통증이 발생

합니다. 이는 목에서 신경이 눌려, 해당 신경을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거나 신경의 이상으로 인해 피부의 민감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빼놓아져 있는 목 주변 척추관절을 바로잡아 주고 늘어져 있는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어 목에서 신경이 덜 눌리도록 추나 치료와 침 치료 등이 필요합니다.

흉추와 늑골로 인한 어깨 결림

가장 진단하기도 어렵고 치료도 잘 안 되는 어깨 결림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이나 어깨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깨 결림의 또 다른 원인은 목이나 어깨가 아니라 갈비뼈와 흉추에 있습니다. 갈비뼈와 흉추가 비틀어져서 어깨 결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가 가방을 댈 때, 가방이 걸리는 곳은 실제 견갑골이 아니라 대개 늑골 1번과 2번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잘못된 자세, 특히 한 쪽으로 무거운 가방을 매는 경우에는 이 갈비뼈들이 틀어져서 어깨 쪽으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런 통증은 보통 어깨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무겁다는 느낌도 아니고 따끔따끔 거리지도 않으면서 어깨 깊숙이에서 짓눌리거나 송곳으로 후비는 듯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고개를 돌리거나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갈비뼈가 흉추와 만나는 곳에서

도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깨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목덜미 아래쪽까지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의 치료는 단순히 어깨만 풀어줘서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목을 아무리 잘 치료하더라도 좋아지지 않고 흉추와 늑골이 제자리로 교정되어야만 좋아집니다. 최선의 치료는 언제나 예방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선 첫째, 한쪽 어깨로만 가방을 매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대개 가방을 매는 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좌우 어깨의 근육 균형이 깨지고 오래되면 척추가 틀어지게 됩니다. 둘째, 모니터 앞에 앉을 때는 모니터를 정면이 두고 의자에 깊숙이 앉아 가슴을 펴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니터에 빨리 들어가듯 접근하면 목이 일자로 되면서 어깨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셋째, 장시간 연속에서 한자세로 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수시로 일어나 허리와 가슴을 펴고 제자리에 서라도 기지개를 펴면서 스트레칭을 해줘 특정 부위에 근육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평소 이상의 예방법들만 생활화한다면 가장 흔한 직업병인 어깨 결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장 이종화 정구경희의원



지호의 일본어

明(あ)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해 첫날인 1월1일에 신정을 지냈었는데, 일본에서는 매년 1월 1일 오전(しょうがつ)에 하여 새해 행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설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 처럼 일본인들도 오正月(しょうがつ)에 初詣(はつもうで)라고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오正月(しょうがつ)오리를 만들어 가족들끼리 나눠 먹습니다. 오正月(しょうがつ)에 먹는 음식은 お餅(もち)料理(りょうり)라고 곱은콩조림·멸치조림·편서우·연근조림·밤조림·다시마·청어알조림 등이 있는데, 곱은콩은 북을 다시마

[일본어]

지호: 藤沢 (ふじさわ)さん 明(あ)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아케마시테 오메데고자이마스 藤沢 : クオソコホさんも明(あ)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입니다. 권지호상모 아케마시테 오메데고자이마스. 지호: 藤沢 (ふじさわ)さん 本年(ほんねん)もよろしくお願(ねが)いします。 후지사와상, 춘년모 오로시쿠 오메가이 사마스. 藤沢 : 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ねが)いします。 고치라코소 오로시쿠 오메가이 사마스. 지호: あ 藤沢 (ふじさわ)さん 初詣(はつもうで)は行(い)かれましたか。 아 후지사와상 하쓰모우데와 이케라마시타키. 藤沢 : まだですが クオンさんはどうですか。 마다데스가, 권상와 도오데스까? 지호: あ わたしもまだですが はい 行(い)きました。 하이 아끼마소. 藤沢 : はい 行(い)きました。 하이 아끼마소.

[해설] 지호: 후지사와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藤沢 : 권지호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호: 후지사와 씨,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藤沢 :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호: 아 후지사와 씨, 신사에는 다녀오셨나요? 藤沢 : 아직 이요, 지호 씨는 어때요? 지호: 아 저도 아직 입니단, 그럼 같이 가실까요? 藤沢 : 네, 갑시다. [단어 및 문형정리] ご無事(ごんじ) 무사히, 初詣(はつもうで) 설날 신사에 가는 것 行(い)く 함께 ● 권지호 기자 kyeore77@mbc.co.kr ● 김수: 藤沢 真奈美(ふじさわ まなみ)



JVC

The Perfect Experience

ProHD

Full HD Progressive & Multi-Purpose



(본 사진은 Fujinon HTs 18 x 4.2 BERM-M48 2x 익스텐더 렌즈를 장착한 이미지 입니다)

GY-HD250U

ProHD가 구현하는 화질과
기동성 그리고 경제성

- Real Progressive HD 해상도
- 720/24P/30P/50P/60P
- HD-SDI 출력
- Tape HDD HD 저장
- FCP 60P,50P 완벽지원



Libre HD 송신기



BR-HD50U



DR-HD100U